

민관 협업으로 지역현안 문제 해결한다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첫 회의 공공기관·시민단체 36곳 참여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등 울 우선 실행의제 11개 확정

앞으로 광주지역의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을 민관 협업으로 풀게 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다양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사회혁신플랫폼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전날인 23일 열었다. 광주사회혁신플랫폼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자원을 연계해 함께 해결해가는 민·관 협업 프로세스다. 한국전력 등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12곳, 광주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6곳, 광주

NGO시민재단 등 시민사회단체 13곳, 준정부기관·연구기관 2곳 등 총 36곳이 참여해 지난 7월 2일 출범했다. 지난 4월부터 마을활동가, 기업가, 청소년,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 200여명이 시민단체·문화·기업·여성·사회적기업·청년 영역으로 나눠 모두 8차례 원탁회의를 진행해 지역 의제 총 40개를 발굴했다. 이후 발굴된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 주제와 실행계획이 잘 준비된 의제 가운데 이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우선 실행 의제 총 11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우선 실행 의제는 ▲영구 임대 아파트 공실 문제 해결과 청년주거의 대안 ▲광주형 쓰레기 문제 해결 마을에서 국가까지 ▲공공기관 1층 사회적 기업 금융장터 운영 ▲폐현수막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광주다운 미래 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또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햇빛발전소 ▲채식, 비거니즘의 장벽 철폐 ▲사회공헌 활동가 플랫폼 구축과 사회공헌캠프 ▲구도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마을 일자리 실현-마을 평생교육센터 시범운영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 빈집을 청년주거로' 사업은 하남 시영아파트에서 광주도시공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 등 16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혁신모델을 만들었다. 현재 국토부, LH공사와 함께 전국 공동혁신의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에 국비 5억이 추가로 배정될 계획이다. 광주환경공단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의제도 전국 공동의제로 추진되는 등 광주의 사회혁신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

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선정된 우선 실행 의제 외에 ▲청년직업장 프로젝트 ▲어린이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등 5개 실행 준비 의제를 비롯한 다른 의제들도 올해 실행 의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의제 제안과 토론에는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 (<http://socialchange.kr/gwangju>)을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광주혁신플랫폼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이용설 광주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결정된 혁신의제들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어 시민 행복,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광주에서 시작된 혁신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광주다운 혁신모델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산구, 건축 민원 처리 문자전송서비스

처리과정 마다 문자 발송

24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집과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등 민원인에게 건축행정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전송서비스 체계를 광주 자치구 최초로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행정 처리과정은 현재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세움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설계사·건축사 등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민원인 건축주와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구 사이의 소통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주는 민원 처리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고, 구는 보완사항 등을 건축주에

게 빨리 알리지 못해 건축기간 연장 등 불편이 많았던 것. 광산구는 이번 문자전송서비스 구축으로 건축주를 비롯한 민원인에게 건축행정 처리과정마다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단, 민원 접수 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민원인에 한해서다.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축행정 민원은 총 112종으로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등의 접수·보완·처리 등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실시간 문자안내 서비스로 불편을 줄이고 업무의 정확성은 높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국제인증 5년 연속 획득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분야 국제인증 5년 연속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8월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Sigma-Aldrich RTC)가 주관하는 먹는 물 분야 국제인증 시험에 참여해 '만족' 평가를 받았다. 평가기관인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시험실인증 협력기구(ILAC)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 인증기관이다.

이번 평가에는 세계 300여 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숙련도 시험은 미지 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시료를 분석 기관에 제공한 후 참여 기관의 평가항목별 측정값과 기준값을 비교해 만족(Pass), 불만족(Fail)으로 평가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분야 평가항목인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유기인계 농약 등 총 17개 항목에서 만족(Pass)을 받아 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최권일 기자 cki@

횡단보도 1곳·무단횡단 금지시설 4곳 설치

광주시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

광주시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광주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는 노인 안전을 위해 남구 효우로 신기교 버스 승강장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승강장과 횡단보도가 멀어 버스를 타고 건강타운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적돼 왔었다. 시는 또 안보회관 사거리~서방사거리 구간에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110m를 설치했다.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필문대로 내대기 시장~남광주교가, 중앙로 KBC~중앙대교, 송정로 광주승정역~송정사방방영에도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노인보호구역 38곳에 표지판,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완료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27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산업단지외 건설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사업장을 감시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환경 감시원'을 모집한다. 환경감시원은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모집 인원은 총 30명(자치구별 6명 모집)이다. 근무기간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시급 8350원이 지급된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6일까지 청년문화축제

내일 이심전심 페스티벌

동구, 가을맞이 풍성한 축제

광주시 동구가 가을을 맞아 풍성한 축제를 준비했다. 동구는 "오는 26일까지 조선대학교 후문 일원 '장미의 거리'에서 가을 청년문화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조대 장미의 거리 상인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특성화 첫 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의 하나로, 5대 핵심과제인 결재면리, 고객신뢰, 위생정결, 상인조직 강화, 안전관리 등 다짐대회와 더불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와 청년들의 버스킹 문화공연을 비롯한 고객들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남도청년보부상과 함께하는 플라마켓 등이 진행된다.

25일 오후 1시30분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제8회 이심전심 페스티벌(Festival)'이 펼쳐진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정신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날 행사는 동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정신질환자, 경계를 넘기 전에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정신건강 세미나에 이어 문화예술공연 '이심전심' 등을 진행한다. 한편, 동구 대표 축제인 '추억의 총장축제'는 다음달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 kimyh@



이용설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단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나고야의 바보들'의 감독 및 출연진과 면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투쟁 앞장 서줘 감사합니다”

주시장, 영화 '나고야의 바보들' 임용철 감독·다카하시 대표 접견

이용설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영화 '나고야의 바보들'의 임용철 감독과 일본 나고야 소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양극덕 할머니와 접견하고 근로정신대 투쟁에 앞장 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 '나고야의 바보들'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20년 넘게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투쟁한 '나고야 소송위

원회'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했다. 접견에서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이용설 시장님이 일본에 오셔서 삼보 일배 하셨던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 까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이 나고야에도 전해져 앞으로도 할머니들이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 시장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헌신에 비하면 저의 노력은 부끄러울 뿐"이라며 "함께 해 주신 양극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란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나고야의 바보들'이란 영화를 제작한 임용철 감독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 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